

4월 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증시 반등.. [다우: 7,608.92pt (+ 1.16%)]</p>	<p>최근 이틀간 큰 폭의 조정을 보였던 은행주와 기술주가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끌며, 뉴욕증시가 31일(현지시간) 사흘만에 반등에 성공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6.90포인트(1.16%) 상승한 7,608.9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79포인트(1.78%) 오른 1,528.59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0.34포인트(1.31%) 상승한 797.87을 각각 기록했음. 미국의 20개 주요 도시의 1월 집값이 전년비 19%나 하락하고, 3월 시카고 제조업 경기가 1980년 이래 최악을 기록하는 등 경기 지표들은 부진했음. 그러나 최근 반등을 주도한 은행주들이 상승세로 전환한데다,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뉴욕증시가 반등세로 3월을 마감했음.</p>
<p>GM 파산우려감으로 이틀째 20%대 급락</p>	<p>반면 하루전 급락세를 보였던 제너럴 모터스(GM)는 이날도 20%가 넘는 폭락세를 기록했음. 프리츠 헨더슨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가 노조와 채권단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데드라인 이전이라도 파산보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 점이 부담이 되었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GM이 채권단과 노조의 양보를 통해 새로운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향후 60일간의 시간을 제공했고, 미 정부는 만약 GM이 이 기간중 납득할만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파산보호를 신청할 계획임.</p>
<p>주택지표 부진</p>	<p>미국의 1월 집값의 경우 전년보다 19%나 감소해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줬음. S&P케이스셸러(S&P/Case-Shille)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20개 도시의 단독주택 집값은 전년비 19%나 하락했고, 이같은 하락폭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컸음.</p>
<p>소비자신뢰지수 소폭 상승</p>	<p>미국의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25.3에서 26으로 소폭 상승했음.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 1967년 이래 최저였던 전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 또 이는 월가의 전망치(28)도 하회하였으며, 실업확대와 집값 하락, 소비자금융 경색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음을 보여줌.</p>
<p>제조업 경기 최악</p>	<p>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근 30년래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음.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가 발표한 3월 구매관리지수(PMI)는 전월 34.2보다 하락한 31.4를 기록했으며, 이는 1980년 이래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34.3)도 하회하는 수치임. 시카고 PMI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며, 기준점인 50일 넘으면 경기확장을, 반대인 경우엔 경기위축을 의미함.</p>

제목	주요 내용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 입 100% 돌파 "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명목 기준으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수입'의 비율은 110.6%로 전년의 85.9%에 비해 무려 24.7% 포인트나 상승. GNI 대비 수출, 수입의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 이 비율은 2000년 77.5%, 2003년 70.6%, 2005년 78.6% 등으로 줄곧 80% 아래에 머물렀으나 2006년 80.9%로 올라섰고 작년에는 단숨에 100%를 돌파했음.
경기 급락세 다소 주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소비 등 경기 지표의 하락세가 둔화됐음. 광공업생산의 경우 지난 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6% 폭락했으나 2월에는 마이너스 10.3%로 감소폭이 줄어들었음. 광공업 생산은 전월(1월)과 비교하면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6.8% 증가했음.
크라제버거 우회상장 무산..소액주주승리	제넥셀세인과 크라제버거 브랜드를 가진 크라제인터내셔널과의 합병 계약이 파기됐음. 이에 따라 크라제의 우회상장 시도도 무산. 감자와 합병 반대에 나섰던 소액주주의 승리인 셈. 제넥셀은 31일 대전에서 재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90% 감자, 그리고 크라제와의 합병 승인 등 4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음.
OECD "올해 세계경제 50년래 최악"	OECD는 31일(현지시간) 회원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OECD 30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국가별로는 일본이 마이너스 6.6%로 가장 부진한 가운데 유로지역은 마이너스 4.1%, 미국은 마이너스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포스코, "中 철강업체 지분 참여 검토중"	포스코는 중국 제철소 인수검토설에 대해 "중국 철강업체에 대한 지분 참여 방안을 검토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31일 발표.
ADB "亞 개도국, 올해 경제 3.4% 성장"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올해 3.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보도. 성장률 3.4%는 지난 1998년 금융위기 여파로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0.2%에 머문 이래 가장 낮은 수치.
한은, 일은과 통화스와 프 6개월 연장	한은과 일은은 지난해 12월 12일 정상시용 원/엔 통화스와프계약 규모를 기존 30억달러 상당액에서 200억달러 상당액으로 확대하고 이를 올 4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
日 재무상 "추가부양 4월 중순 마련될 것"	요사노 가오루 일본 재무상이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이 4월 중순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31일 발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요사노 재무상은 "추가 부양책은 고용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